

기록화 리빙랩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rded Living Lab Information Platform

○윤 주 능* 유 해 연**
Yoon, Ju-Neung Yoo, Hae-Yeon

Abstract

There is a problem that living labs in many areas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sustainable. For this reason, Living Lab needs to establish an information platform for persistence of living lab. If the information platform is established, the independence of the phased living lab will be realized, and detailed information platform construction guidelines are needed because record data can be managed efficiently.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building an information platform is proposed in the form of a homepage for the continuity of Living Lab. In particular, it aims to propose guidelines for establishing information platforms around Shinwol 3-dong, Yangcheon-gu, Seoul.

키워드 : 리빙랩, 정보플랫폼, 가이드라인, 지속성, 기록관리, 홈페이지

Keywords : Living Lab, Information Platform, Guidelines, Persistence, Management, Homep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의 도시재생 사업 중 많은 지역이 주민 참여형 리빙랩의 구축을 통한 주민 양성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빙랩이 전문가의 실측 정보 기록과정 및 주민교육단계에서 그치고, 이후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물은 일반적으로 책자의 형태로 출간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재생 사업 내 기록화 리빙랩은 주민 교육의 단계를 넘어서 지속적인 리빙랩 운영을 위한 정보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계적인 리빙랩의 자립이 실현될 것이고, 책자 이외에 온라인 데이터의 형태로 기록이 남겨지고 관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화 리빙랩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화 리빙랩의 지속성과 기록 자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플랫폼 구축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특히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기록가의 면담 활동과 전문가의 실측자료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플랫폼은 홈페이지의 형태로 구축되는데 기록 자료를 제공하는 주민과 자료를 업로드 하는 홈페이지 제작업체, 그리고 그 사이의 중간 역할로 자료 정제작업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운영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세 운영주체 중 전문 인력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정보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재생 사업지의 기록화 리빙랩 운영 사례인 신월3동 리빙랩을 분석하여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보플랫폼을 구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진행과정으로 첫째, 국내 기록화 리빙랩의 활동기록을 조사하여 자료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존 리빙랩의 활용 범위를 조사하고 정보관리와 접근을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기록화 리빙랩의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빙랩 플랫폼 운영의 의의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숭실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학부생

** 숭실대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Hae-Yeon Yoo,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369 Sangdo-ro, Dongjak-Gu, Seoul, 06978, South Korea. E-mail: zenism@ssu.ac.kr)

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입니다.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2. 기록화 리빙랩의 개요 및 필요성

2.1 기록화 리빙랩 기록자료 활용 범위 조사

리빙랩은 주민 또는 이용 당사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회 문제해결 방식이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유형의 리빙랩 중 기록화 리빙랩의 경우 도시재생지역의 변화모습을 기록하여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기록화 리빙랩을 통한 기록 자료는 주로 책자의 발간, 지역신문 발행과 같은 형태로 출판되어 보존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록물을 학술적 자료로 남기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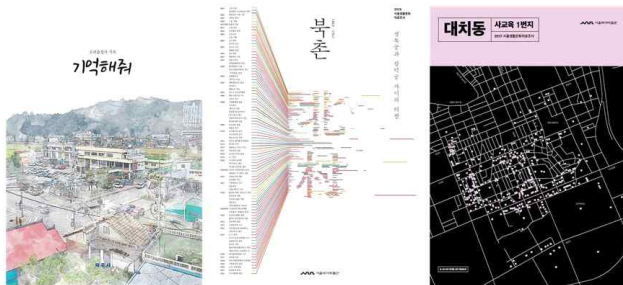


그림 1. 기록화 책자 예시 표지사진

출처 :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index.do/>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seoul.go.kr/>

다양한 기록화 책자 예시 중 파주시에서 진행한 조리읍 청사에 대한 기록 자료인 ‘기억해줘’의 사례를 보면, 청사 기록화를 위해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록팀이 조직되어 기록 작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온라인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달리 북촌과 대치동의 책자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열람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에도 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마땅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미술관 홈페이지라는 플랫폼에 업로드 되어 모두에게 열린 자료로서 다양한 활용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리빙랩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역사박물관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는 성격이 맞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록 활동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기록 활동의 경우 주민주도형 기록화 사업이 실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플랫폼의 구축과정이 필요하다.

2.2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리빙랩 현황 소개

리빙랩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혁신 생태계이며 도시재생 현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실험실로 정의된다. 즉 공급자 중심의 기존 도시개발 형태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재생 방식이다.



그림 2. 서울시 신월3동 신삼마을 구상도
출처 : 양천구 제공(2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동은 2019년부터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도시재생지역이며, 지역만의 특성을 발견하여 향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월3동은 약 108,000㎡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고, 해당지역의 기록화작업을 위해 리빙랩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삼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 계획단계에서 주민모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중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에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목기록가’를 육성 중에 있다.



그림 4. 골목기록가 1기 수료자 / 신삼리빙랩 모습

골목기록가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골목의 모습을 실측하고 주민들의 삶을 구술 자료로 기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골목기록가는 현재 총 4개의 단계로 구성된 교육을 수료하고 1기 골목기록가가 선발되어 신삼리빙랩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실측 및 구술기록 자료를 위해 리빙랩 정보플랫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료 접근성의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홈페이지는 골목기록가에 의해 기록물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나아가 향후 기록화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테스트베드 지역의 정보를 포괄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한다.

2.3. 기록화 정보플랫폼의 필요성

도시재생 사업지의 기록화 과정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잊혀질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 지역성에 맞는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도시의 모습이 확립²⁾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록물을 통해 해당지역 내에서 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된다.

²⁾ 유아람, 유해연(2020), 역사문화 기록화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연구, p. 1

3. 기록화 리빙랩 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3.1 기획

리빙랩 정보플랫폼의 기획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은 기록물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메뉴 구성을 계획하는 일이다. 신월3동은 ‘생활문화기록화 리빙랩’의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분류되어 골목기록가가 생산하는 ‘실측기록’과 ‘구술기록’으로 자료가 구분된다. 따라서 메뉴의 구성은 총 5가지의 형태인 신삼 리빙랩 소개, 운영 절차, 골목기록가 소개, 최신기록, 기록보관소로 구성되었고, 실측기록과 구술기록은 각각 기록보관소, 최신기록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도록 하였다. 실측기록인 기록보관소의 경우 약 4개월의 주기로 실측을 통한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최신기록의 경우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림 4. 정보플랫폼 초기 기획단계 회의 및 구성표

다음으로 자료의 형태에 알맞은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 레이아웃을 계획했다. 또한 생활문화기록화 리빙랩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테스트베드2, 테스트베드3 지역의 정보플랫폼 운용을 위해 추가적인 메뉴 레이아웃을 구성했다.

3.2 계획

정보플랫폼 제작 전 기획한 레이아웃은 제작이 진행되면서 제작업체와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및 보완 작업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드백의 주요 내용은 전문연구원과 제작업체 간의 작업효율성을 위한 피드백으로, 업로드 될 내용은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야 하며, 이미지와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연구팀에서 1차 레이아웃을 구성하여, 전달하고, 제작업체가 작성한 후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 안이 확정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그림 5. 역사/생활문화기록화 리빙랩 정보플랫폼 초기 디자인



그림 6. 리빙랩 운영자교육 레이아웃 피드백 과정

[그림 7]의 우측 사진은 생활문화기록화 리빙랩의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좌측 사진은 해당 다이어그램의 초기 계획인데, 이와 같이 제작업체와의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7. 초기 다이어그램의 디자인 수정작업

[그림 8]은 기록화 리빙랩의 운영방향 다이어그램이다. 좌측 이미지처럼 초기 디자인을 계획한 뒤 계획단계를 거치면서 홈페이지 전체적인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그림 8. 기록보관소(실측기록) 레이아웃 계획과 실제 적용

신삼마을 기록물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록보관소’의 경우 해당 골목의 위치를 나타내는 맵, 입면실측의 순서, 실사 사진, 실측 일러스트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하는 형태의 포맷을 만들어 제작이 진행되었다. 기록보관소 역시 웹 환경의 특성에 맞게 초기 포맷에서 적절한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중심가로를 기준으로 구역을 정하고 구역별로 골목 실측자료 목록을 구성하는 방법은 유지되었다.

3.3 운용 및 유지관리

기록화 리빙랩 정보플랫폼에 기록자료 업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최종 검토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고 오픈을 하게 된다. 홈페이지의 오픈 후 골목기록가의 활동에 의한 구술자료는 관리자에 의해 수집이 되고, 제작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분기별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그림 9. 리빙랩 홈페이지 완성 이미지

골목기록가 구술기록 과정에서부터 홈페이지 업로드에 알맞은 포맷으로 작성이 된다면 관리자인 전문연구원의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리빙랩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리빙랩 사업이 종료된 후 전문연구원의 개입이 없을 경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림 10. 골목기록가의 주민면담 활동기록

그림 10의 좌측 자료는 골목기록가가 작성한 면담일지를 정보플랫폼의 포맷에 맞게 전문가가 각색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현재 구축된 정보플랫폼은 이와 같이 운영에 있어서 전문연구원의 중간개입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주민들의 완전한 자립을 통한 리빙랩 운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골목기록가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4. 리빙랩 플랫폼 운영의 의의와 시사점

4.1 신월3동 리빙랩 운영 방향성 제시

신월3동의 골목기록가는 두 가지 유형의 기록물을 제작하는 교육을 받았다. 골목의 이미지를 실측하는 방법과 주민 면담교육이 그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기록물은 정보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데, 실측 기반의 기록 자료는 상대적으로 긴 주기를 가지고 기록되는 반면 면담 활동 기반의 구술 자료는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누적의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주요 기록물의 비중과 분량이 정해지게 된다.

또한 골목기록가는 총 6명으로 이루지고 기록물의 형태

에 따라 특화된 분야가 존재한다. 교육기간 중 이러한 성향을 발견하고 발굴해내는 작업이 진행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세분화된 리빙랩의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신월3동 리빙랩 운영의 주체인 주민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개인별로 특화된 분야의 발굴과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는 리빙랩의 전문성과 지속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국내의 리빙랩은 다양한 주체들의 활발한 참여활동으로 점차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도시재생 내 기록화 리빙랩의 경우 기록물 주체의 육성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정보의 유지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게 되고 결국 사업이 종료된 후 지속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기록화 과정과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플랫폼의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정보플랫폼은 홈페이지의 형태로 구축될 수 있고, 이는 주민, 홈페이지 제작업체, 그리고 그 중간역할인 전문가로 운영주체가 세분화된다. 정보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과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세 운영주체에서 전문가의 참여도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구축과정을 기획, 계획, 시범운영, 모니터링, 수정 및 보완, 운영의 단계로 나누어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록화 리빙랩의 정보자산이 관리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양지원, 유혜연(2020), 생활문화기록화사업의 현황 및 특성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2020 춘계학술대회는 문집, Vol. 40 No. 1, pp.209~212
2. 유아람, 유혜연(2020), 역사문화 기록화를 통한 지역재생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2020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Vol. 40 No. 1, pp.241~244
3. 파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ju.go.kr/index.do>
4.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urcpaju.com/>
5. 양천구청 홈페이지,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main.do>
6. 금천구청 홈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895>
7. 양천구 도시재생과(2019),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제안서, 양천구, pp. 7~11
8. 역사생활문화기록화리빙랩 홈페이지, <http://crrglivinglab.com>
9.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s://museum.seoul.go.kr/www/NR_index.do?sso=ok